

광주극장 12월 엄선작 절찬리 상영

백남준의 예술 ‘… 오래된 TV’
일본 영화 거장의 신작 ‘괴물’
성 소수자와 연대 ‘조이랜드’
장기 흥행 이어가는 ‘너와 나’

광주극장이 엄선한 12월 영화들이 절찬리 상영 중이다. 국내외 영화제 달군 수상작부터 최근 흥행작까지 다채롭게 스크린을 채운다.

먼저 지난 6일 개봉한 ‘백남준 : 달은 오래된 TV’가 화제를 모은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의 삶과 예술을 담은 놀랍게도 백남준에 관한 최초의 영화이다. 영화는 한국계 감독 어맨다 김이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작품 ‘TV 부처’를 감상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감독은 백남준을 향한 강렬한 공경증과 애정에서 출발한 프로젝

트를 시작한다. 까다로웠던 저작권 문제 해결을 비롯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남준의 기록들을 모으고 백남준을 기억하는 동시대 아티스트들을 취재한다. 총 5년에 걸친 시간 동안 오직 백남준에만 매달렸다.

특히 이번 작품은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 총괄 프로듀서에 참여한 것은 물론 백남준의 글을 낭독하는 특별한 내레이션을 맡아 그 의미와 감동을 더했다.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2023 선댄스영화제, 코펜하겐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MoMA Doc Fortnight 등에 초청된 것에 이어 영국 신문사 가디언이 2023년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한 기대작이다. 현재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이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전시 ‘백남준 ; 사랑은 10,000마일’을 열고 있어 전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영작이다.

지난 9일 개봉한 ‘괴물’은 몰라보게 바뀐 아들

의 행동에 이상함을 감지한 엄마가 학교에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의문의 사건에 연루된 주변 사람들 모두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면서 영화는 극에 치달는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느 가족’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과 관계에 집중하며 일상의 순간을 섬세하게 다루는 연출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세계적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이다. 영화는 제76회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다.

13일 개봉하는 ‘조이랜드’는 파키스탄 사회의 성 정체성에 대한 통용성과 가부장제를 다룬 드라마다. 영화는 가부장제의 인적 희생을 치른 모든 여성, 남성, 성소수자(트랜스 젠더)와 깊은 유대감을 이뤄낸다. 제75회 칸 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심사위원장, 쿼어 팜 2관왕 석권,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예비 후보 스티스트에 선정된 수작이다.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너와 나’도 상영을 이어간다. 영화는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마음 속에 담은 채 꿈결 같은 하루를 보내는 고등학생 세미와 하은의 이야기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D.P.’에서 조석봉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조현철의 첫 장편 연출작이자, 주연배우 박혜수와 김시은의 빛나는 열연과 케미스트리가 화제를 모은다.

이 외에도 우연한 하룻밤 이후 마음 한 칸을 나누게 된 길호와 기영의 꿈 같은 만남을 다룬 영화 ‘빅슬립’과 김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재우(주종혁)가 과거 자신의 형을 사고로 죽게 한 상대 태수(문진승)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만분의 일초’ 등이 절찬 상영 중이다. 영화제 상영작 시간표는 광주극장 카페(<https://cafe.naver.com/cinemagwangju/16644>)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 소년합창단이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대교구청 성당에서 ‘예수님 어서오세요’라는 주제로 제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제공

성탄맞이 ‘주님의 사랑’ 노래해요

가톨릭평화방송 소년합창단
15일 광주대교구청 성당서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FIAT DOMINI) 소년합창단(단장 이옥수 신부)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대교구청 성당에서 ‘예수님 어서오세요’라는 주제로 제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시기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며 총 4부로 나뉜다.

1부 ‘예수님 어서 오세요’에서는 합창단이 노래로 표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 ‘하느님 약속하신 분’ 3곡을 선보인다.

이어 2부는 ‘기뻐하소서 성모님’이라는 주제로 ‘동정녀시여! 기뻐하소서(Ave Virgo)’, ‘성모송(Ave Maria)’, ‘찬양-

성모의 노래(Benedictus-Magnificat)’와 3부 ‘반가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들인 ‘아기 잘도 잔다’, ‘천사들의 캐롤(Angel’s carol)’, ‘종들의 노래(Carol of the bells)’를 선사한다.

특히, 성탄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 4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러브’, ‘크리스마스 캐롤 잼보리’ 등의 화음을 전한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육현진 대주교는 “소년합창단원들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축하 음악이 될 것”이라며 “맑고 밝은 목소리가 늘 그리운 우리들의 삶처럼 이 자리가 모두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가톨릭평화방송(062-231-7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미술관 오픈스튜디오 개최

14일부터 이틀간 성과발표
서영기·박인선 등 4인 참여

광주시립미술관은 국제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를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마련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레지던시에 입주하고 있는 작가들의 1년간 작업 결과물을 공유한다.

올 한 해 동안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에는 지역출신 서영기(회화), 박인선(혼합매체) 작가가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펼쳤다. 또 해외 입주작가와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이어오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 해 동안 두 작가의 작업 성과를 동료 작가 및 문화예술 관계자 등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영기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

서양화를 전공하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이다. 서영기 작가는 삶 속의 풍경을 그리지만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작가 내면에 표출되는 감정으로 그 풍경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조금 천천히 그리고 다방면으로 바라보는 자신만의 삶의 태도를 그림에 녹여내고 한다.

박인선 작가는 목포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회화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펼쳐 나가고 있는 작가이다. 작가는 주로 자연과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대상이 가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재구성하여 초현실적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미술관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올 한 해 교류기관 해외레지던시 파견작가와 함께 성과발표회를 진행한다. 시립미술관은 올해 5~6월 대만 타이난 ‘샤오룽 아티스트빌리지’에 관승찬 작가를, 7~9월 독일 뮌헨 ‘빌라 발트베르타’ 레지던시에 설박 작가를 파견했다. 해외 파견작가 성과발표회를 통해 향후 교류기관 해외레지던시 파견을 희망하는 작가들에게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 중외공원 내)에서 관람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예술인 공유공간 ‘소소라운지’ 오픈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층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1층에 예술인 공유공간인 ‘소소라운지’가 조성됐다. ‘소소라운지’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와 여러 세대의 예술인들을 연결하고, 창·제작을 위한 소규모 활동과 행사가 가능한 곳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소라운지는 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바

람이었다. 회의, 소규모 세미나 등을 치를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커피숍이나 개인 작업실을 전전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인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공유공간 니즈를 확인하고 ‘소소라운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공간이니 많은 예술인들이 이용해주길 바



예술인 공유공간 ‘소소라운지’

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